

# “20세기 전반기 한국어 연구의 몇 문제”에 대한 토론문

유필재\*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pjyoo@mail.ulsan.ac.kr\*

발표 논문에서는 (1)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료 구축(코퍼스의 형태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2) 또 현대한국어 계사 '-이-'의 해요체 활용형 '-이어요'가 '-이에요'로 사용되는 현상, 기원적으로 '-으시- + -어요'에서 기원한 어미 '-으셔요'가 '-으세요'로 변화한 현상이 1920년대부터(20세기 전반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발표 논문에서 보고된 '-이에요, -으세요'에 대한 사실은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 연구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20세기 전반기 한국어 연구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제안에 토론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현상을 몇 가지 더 보태려 합니다. '-이에요, -으세요'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의 해석을 약간만 더함으로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1. 20세기 전반기 한국어 연구의 필요성과 제안

20세기 전반기를 전후한 시기에 한국어사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가 현재의 한국어입니다. 그동안의 연구에 의해 이해하게 된 변화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현대한국어의 연결어미 '-으니'는 '먹으니, 가니, 사니(← 살-)'에서 보듯이 자음 뒤에서는 '-으니'로, 모음, ㄹ 뒤에서는 '-니'로 교체되는 일반적인 어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를 가진 의문형 종결어미 '-으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먹으니?'는 불가능하고 '뭐 먹니?'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음으로 끝난 형용사일 때는 수의적으로 '-으니'가 나타납니다.

### (1) 좋니?, 어쩜 좋으니?

의문형 어미 '-니'는 20세기 초에는 '아니(← 알-), 잇니'처럼 동사, '있-, 없-(-었-, -겠)' 뒤에 서만 나타나는 어미였습니다. 분포가 형용사, '-이-, 아니-' 뒤로 확대되면서 같은 해라체 의문형 어미 '-으냐'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교체 양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유필재 2018).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상대경어법 등급은 해요체와 해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어 문법서에 있는 하오체는 음성언어로는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기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 (2) (노인) 여보 말 좀 무러 봅시다 저 집이 김관일 김초시 집이오

(이웃 슝) 네 그 집이오 그러는 그 집에 아무도 업나 보오 <혈의누 22>(1906)

현재 해요체를 쓸 자리에 20세기 전반기에는 대개 하오체를 썼습니다. 하오체가 가졌던 예사 높임의 기능을 현재는 해요체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현재 영화 자막 등에서 쓰이는 하오형의 형태는 朴正壬(2008: 40-42)에서 별도로 분류한 '-오/-소' 형태와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오체가 어떻게 해요체로 대체되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에서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진 바가 없는 듯합니다. 아마도 20세기 전반 그리고 후반 앞부분에 걸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듯한데 아직은 구체적인 조사 연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발표 논문에서 지적인 것처럼 자료 구축과 분석이라는 지루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세기 전반기 자료라도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글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安秉禧 1992: iv-v) 한국어사 연구의 태도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행본 『川邊風景』의 '솔이, 솔에다(8, 16쪽)'는 원래는 '숫이, 숫에다(朝光 1936년 8월호 265, 271쪽)'였습니다(유필재 2012: 106). 후자가 언어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2. '-이예요, -으세요'에 대한 기술과 설명

발표 논문의 정밀한 조사로 '-이예요, -으세요'가 1920년대를 기점으로 활발히 사용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 중 하나인 '-이야요, -이애요'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덧붙여 봅니다.

'-이예요'는 계사 '-이-'의 해요체 활용형입니다. 현재의 한국어 교체 양상으로 보면 '-이어요'가 예상되는데(예: (머리에) 이다, 이어요) 이때는 '-이예요'인 점이 특이합니다. 이 '-이예요'가 20세기 초기에는 '-이야요'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의 해체 활용형이 '-이야'인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형태입니다. '해체'(傘말)가 먼저 생기고 이후에 '해요체'로 확대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계체 어미 '-는가/-은가 ~ -나'에도 '-요'가 결합된 해요체 어미 '-는가요/-은가요 ~ -나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요'가 '-이애요, -이애요'로 변화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방언에서 '-어야, -어야지'도 '-어애, -어애지'로 변화한 예가 있습니다(유필재 2006: 309). '-이어요'는 나중에 생긴 규칙형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방언을 포함한 중부방언에서 'ㅏ > ㅐ, ㅓ > ㅔ'라는 평행된 음운변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되-, 뛰-'의 모음 어미 결합형으로 '돼:'와 '되어', '뛴:'와 '뛰어'가 모두 존재하는 것도 이 변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어에서는 규범화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많이 버려졌습니다. 'ㅓ > ㅔ'에 관해서라면 '귀여지 > 귀에지, 우연만하다 > 웬만하다' 등 일부에서만 살려 두었습니다. '-으셔요 > -으세요'의 변화 역시 이 영향이 아닌가 합니다. 서울방언의 '-으련 > -으렌'도 같은 부류에 듭니다(유필재 2006: 183).

## 참고 문헌

- 朴正壬(2008), 『천변풍경』에 나타난 서울방언의 상대경어법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安秉禧(1992), 『國語史 資料 研究』, 文學과知性社.  
유필재(2006), 『서울방언의 음운론』, 월인.  
유필재(2012), 『川邊風景』과 『三代』 속의 서울방언에 대하여, 『한국문학과 예술』 제10집(송실대 한국문예연구소), 99-119쪽.  
유필재(2014), 현대국어 하오체의 변화에 대하여, 국어학 70집, 59-83쪽, 국어학회.  
유필재(2018), 현대국어 해라체 의문형 어미 '-느냐/으냐, -니'의 변화, 『어학연구』 54-1(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79-96쪽.  
이익섭, 채 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學研社.